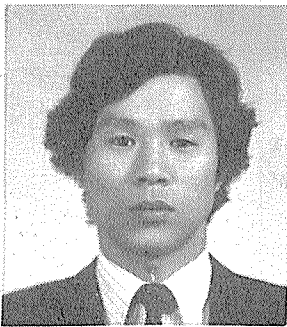


特輯

유전스와 精油産業

유전스 輸入기간 단축과 展望



金 泰 根
(貿易會報 · 記者)

1. 최근의 市中資金事情動向

물론 李·張私債과동이 있었다고는 하나 82년에 27% (年末殘額 기준)에 달한 總通貨 증가율이 83년에는 15.2%로 12% 가까이 줄어들면서 市中資金사정은 총통화증가율 둔화폭 이상으로 응색해졌다. 연간 4조 2331억원이 공급된 통화가 3조 339억원으로 1년 사이에 1조 2천억원이 줄었고, 올해는 지난 5月末 현재 11%를 밑도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대로 돈이 없어 켤썩 매고 있고, 기업은 銀行돈줄이 막히자 短資會社·証券會社·保險會社 등 第2金融圈에서 돈을 꾸어 오느라 금융비부담이 늘고 있다. 貸出금리가 年 10%~10.5%라고는 하나, 은행돈 쓰기가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요즘에는 10%대의 금리는 꿈같은 얘기고 實質調達金利가 18~19%선까지 육박하고 있으며, 신용이 적은 중소기업은 이보다 훨씬 높다.

자금이 팍박하면 家計도 우선 지출을 줄이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연기하기 마련이다. 緊縮가운데서는 조달보다는 支出을 억제 또는 연기하는 것이 그래도 손쉬운 편이다. 특히 輸入部門에서는 一覽拂어음보다는 延支給輸入을 더 선호하게 된다. 연지급기간동안의 이자를 물더라도 당장의 결제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금리 등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되도록이면 결제를 연장하는 것이다.

2. 유전스 輸入動向

유전스輸入은 資本去來計定에서 단기무역신용에 속하나, DA(無信用狀 引受引渡條件) 수입실적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短期貿易信用導入金額을 유전스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기간별로는 1년 이상과 1년 이하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 1년 미만이 차지하고 있어 短期貿易信用전체가 1년 미만의 유전스輸入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短期貿易信用導入 추이를 보면, 지난 81년 97억 6천만달러, 82년 94억 5천만달러, 83년에는 104억 3천만달러로 國內總輸入(국제수지기준)中 占有비율이 81년에는 총수입 243억달러중 40.1%, 82년에는 234억 7천만 달러중 40.2%, 83년에도 249억달러중 41.88%를 각각

차지, 전체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유전수수입등 外上輸入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3년의 경우에는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延支給輸入 기간을 종전 180일에서 120일로 무려 60일이나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규모면에서나 총수입중에서의 점유비율이 커져 무역업계의 외상수입 의존도를 가늠할 수가 있다.

〈國際收支動向〉

(單位: 億달러)

	1981	1982	1983
經常收支	-46.5	-26.5	-16.2
(對GNP比重, %)	(-6.9)	(-3.7)	(-2.2)
貿易收支 개선	7.6	10.4	9.4
(價格 요인)	(-6.0)	(11.5)	(4.3)
(數量 요인)	(13.6)	(-1.1)	(5.1)
對美貿易收支	-3.9	2.8	19.8
對日貿易收支	-28.7	-19.2	-28.4
長短期資本導入(純) 및 金融借入	54.6	45.3	24.4
(長期資本純도입)	(28.4)	(12.3)	(12.8)
(短期資本純도입)	(-0.8)	(-)	(9.1)
(金融機關借入)	(27.0)	(33.0)	(2.5)
總外債規模(연말기준)	324.9	373.0	401.0
(短期外債비중, %)	(36.2)	(37.8)	(34.8)
對外資産(연말기준)	82.4	92.9	99.6
對外純債務(연말기준)	242.5	280.1	301.4
D S R (중장기, %)	13.9	15.9	15.5
D S R (短期利率 포함, %)	20.4	21.0	19.2
元利金상환액 / GNP (%)	8.3	8.4	7.7

이같은 현상은 市中資金事情·換率·金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우선 통화당국의 지속적인 금융긴축의 여파로 무역업계를 비롯, 기업자금사정이 팽박해진 것이다. 상업어음割引 및 輸出支援金融등 일부 정책자금을 제외한 당좌대월등 일반자금의 한도가 은행으로부터 감축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유전스輸入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換率이 지난해부터 예년보다 안정됐다. 지난 80년 1.12變動換率制 채택 이후 실제 83년에는 年初의 달러당 748.5원에서 연말에는 달러당 793.90원으로 연간 6.2%의 상승에 그쳐 82년의 6.7% 47.8원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울들어서도 지난 1월초 달

리당 797.5원이던 換率이 6월말에 약간 오름세를 시현할 뿐 환율이 안정세를 지속했다. 또한 國際短期金利도 작년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美 프라임레이트가 8월에 0.5% 포인트 오르긴 했으나, 연말까지 12.5%선을 유지했고, 調達金利인 BA(銀行引受어음)레이트도 年中 9%선에서 머물렀다. 美国계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LIBOR 등 유로금리도 안정세를 보여 연간기준으로 볼때 LIBOR(런던銀行間금리) 3個月物이 연초의 9.8%에서 연말 9.8%로 0.75% 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이같은 換率 및 金利의 안정에다가 국내자금사정이 가세, 輸入業者는 국내신용보다 해외신용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연히 延支給輸入을 늘리게 된 것이다.

〈資本去來〉

(單位: 백만달러)

	1983		1984	增減額	
	I	IV	I	前期比	前年同期比
I. 長期資本(純)	258.2	817.6	514.4	-303.2	256.2
公共借款	318.5	513.9	302.9	-211.0	-15.6
商業借款	387.8	187.8	249.8	62.0	-138.0
元金償還(-)	313.5	571.2	322.1	-249.1	8.6
直接投資(純)	14.4	21.4	-20.5	-41.9	-34.9
開發機關借入(〃)	50.7	287.1	92.0	-195.1	41.3
中長期輸出(〃)	-138.7	-23.0	140.1	163.1	278.8
入金	232.5	558.5	429.4	-129.1	196.9
履行	371.2	581.5	289.3	-292.2	-81.9
其他	-61.0	401.6	72.2	-329.4	133.2
II. 短期資本(純)	210.6	283.8	-131.9	-415.7	-342.5
短期貿易信用(〃)	372.1	205.0	-189.3	-394.3	-561.4
導入	2,487.7	2,935.2	2,604.7	-330.5	117.0
償還	2,115.6	2,730.2	2,794.0	63.8	678.4
民間短期借入(純)	-31.0	114.1	88.5	-25.6	119.5
輸出先受金(〃)	0.7	-4.8	-10.0	-5.2	-10.7
延拂輸出(〃)	30.7	-6.8	27.1	33.9	-3.6
其他	-161.9	-23.7	-48.2	-24.5	113.7
III. 金融借入(純)	-505.8	139.7	-86.9	-226.6	418.9
뱅크론(〃)	-21.3	161.6	-86.7	-248.3	-65.4
IMF資金引出(〃)	-3.7	65.9	16.0	-49.9	19.7
本支店甲計定(〃)	-49.8	253.7	145.3	-108.4	195.1
리파이낸스(〃)	-580.7	44.9	-272.4	-317.3	308.3
預受金(〃)	6.6	-34.1	245.0	279.1	238.4
其他	143.1	-352.3	-134.1	218.2	-277.2
合計	-37.0	1,241.1	295.6	-945.5	332.6

3. 短期貿易信用이 외채구조에 미치는 영향

지난 82년 멕시코의 外債상환능력 상실선언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등 中南美제국을 비롯 巨額債務國들은 IMF(國際通貨基金)와 資金引出協約 체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IMF측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엄격한 경제운용조건을 제시받음에 따라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제수지개선의 지름길은 수출을 늘리기 보다 수입을 줄이는 것이 손쉬운 일이기 때문에 수입억제조치 결과 실제 이들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지난 83년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이같은 對外經濟수치가 개선된 반면 대내적으로 당장 物資不足에 따른 물가상승·高인플레이션·실업률증가 등으로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들 巨額外債國들이 이같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IMF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IMF의 위력이 그 만큼 엄청나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주요 債務國의 경제성장 및 物價推移〉

(單位: %)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1981	1982	83(추정)	81. 12	82. 12	83. 6
中南美 巨額 債務國	아르헨티나	- 5.9	- 5.6	3.0	131.3	209.7	340.1
	브라질	- 1.9	1.4	- 5.0	91.2	97.9	112.2
	칠레	5.7	-14.3	- 3.0	9.5	24.3	32.3
	에콰도르	4.4	1.4	- 2.0	18.0	24.4	48.2
	멕시코	8.1	- 0.2	- 5.0	28.7	98.9	112.5
	페루	3.9	0.7	- 9.0	72.7	72.9	107.7
	베네수엘라	0.4	0.6	- 4.0	11.0	7.7	5.4
	小計	2.2	- 0.9	- 3.9	50.9	82.6	105.8
除他地域 巨額 債務國	콜롬비아	2.5	1.5	2.5	25.6	24.1	20.5
	인도네시아	7.6	2.5	0.0	7.3	10.0	13.5
	말레이시아	6.7	4.6	5.0	8.8	5.2	4.0
	필리핀	3.7	2.8	1.5	12.6	7.3	6.6
	台灣	5.0	3.8	6.0	9.9	3.0	3.7
	泰國	6.3	4.2	5.5	12.4	2.6	3.2
	小計	5.8	3.4	3.6	10.5	6.5	7.5

註: 1) 재화 및 용역의 총수출(1982년 실적)을 가중치로한 평균임.

〈資料〉Morgan Guaranty Trust, World Financial Markets (83. 9)

우리 나라는 작년말 현재 외채규모가 총 401억 달러, 지난 5월말 현재는 414억달러로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中南美제국에 비하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세계에서 몇손가락안에 꼽히는 巨額債務國에 속한다. 지난 81년 총 외채잔액은 324억 9천만달러이었으나, 2년 사이에 75억달러가 늘었다.

外債의 구조를 보면, 지난 81년에는 長期 207.3억달러, 短期 117.6억달러로 短期比重이 36.2%였으나, 82년에는 141억달러로 37.8%로 늘었으며, 83년에는 139.7억달러로 34.8%로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졌다. 이는 經常收支赤字減少등으로 외화자금수요가 줄어들어 자본 및 금융거래를 통한 외자조달규모가 감소한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또 상환부담이 큰 단기외채는 상환된 반면 長期外債은 크게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83년중의 자본 및 금융거래를 보면, 經常收支赤字가 16억 2천만달러로 지난 82년의 26억 5천만달러에 비하면 10억 3천만달러나 개선됐다. 우리나라의 輸出入構造나 資本去來패턴에 미루어 볼 때, 가히 놀랄 만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元利率 상환추이〉

(單位: 億달러)

	1982			1983		
	元金	利子	利率率 (%)	元金	利子	利率率 (%)
中長期 (固定金利)	232.0 (129.5)	23.0 (9.0)	9.9 (6.9)	259.9 (140.9)	22.1 (9.7)	8.5 (6.9)
(流動金利)	(102.5)	(14.0)	(13.7)	(119.0)	(12.4)	(10.4)
短期	101.9	14.7	14.4	105.9	11.1	10.5
計	333.9 (393.0)	37.7	11.3	365.8 (401.0)	33.2	9.1

註: 1) ()内는 外債總計이며 이자지급대상의 채와의 차이는 利子支給이 猶豫中인 外債 때문이다.

短期外債가 외환정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단기성 채무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빨리 도래하고 금리부담이 높아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固定資産, 즉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자본이나 固定負債로, 流動資産에 소요되는 자금은 단기성의 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것이 기업자금조달원칙이다. 국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外債負擔能力〉

(單位：億달러)

	1981	1982	1983
중장기 元利金상환액(A)	38.0	45.0	46.9
短期利子포함元利金상환액(B)	55.7	59.7	58.0
經常外換取入(C)	272.7	283.6	302.1
중장기DSR ¹ (A/C, %)	13.9	15.9	15.5
短期利子포함DSR ¹ (B/C, %)	20.4	21.0	19.2
經常取支적자/GNP(%)	- 6.9	- 3.7	- 2.2
元利金상환액/GNP(%)	8.3	8.4	7.7

註：1) 전통적인 DSR은 중장기元利金償還額만을 經常外換取入으로 나누어 계산하나, 1982년 短期外債로 인한 中南美 外債危機 이후부터 단기외채까지 포함한 DSR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

로 단기외채로는 施設投資財源으로 쓸 수 없고, 운전자금이나 國際收支赤字 보전용으로 들여오고 있으나, 상황기간이 단기인데다가 금리가 높아 결국 빛과 利子갚기 위한 借款을 또 들여와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또 외채구조개선 필요성이 지적될 때마다 短期貿易信用감축이 거론되는 것은 단기외채중 유전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지난

79년만 해도 단기무역신용은 연간 65억9150만달러를 도입하고 56억 209만달러를 상환하여 잔액이 18억 1천만달러에 그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80년에 크게 늘어 40억1200만달러의 잔액을 보유하게 됐다. 81년에도 80년과 비슷한 40억176만달러선을 유지하다가 82년에는 38억달러로 감소되는가 싶더니 83년 들어 41억1440만달러, 올들어 지난 1·4분기말에는 39억5760만달러로 잔액이 감소하는 추세중에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短期貿易信用도입이 104억 3천만달러, 상환이 96억 6천만달러로 비교적 入超幅이 크지 않으면서 상황이 전년대비 9천만달러가 늘어난 것은 정부에서 유전스기간을 5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종전 180日을 120日로 60日이나 줄였기 때문이며, 그나마 줄이지 않았더라면 入超現像은 더욱 심화됐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외채규모가 커지고 短期外債점유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元利金상환액이 커졌다. 지난 81년 中長期元利金상환액만도 38억달러, 82년 45억달러, 83년 46억 9천만달러였으며 短期外債利

〈貿易信用現況〉

(單位：百萬달러)

		1976			1977			1978		
		導入	償還	殘額	導入	償還	殘額	導入	償還	殘額
1年이상	유전스	133.1	140.0	378.3	89.7	140.3	327.8	333.5	181.7	479.5
	D/A	0.1	2.9	7.2	—	0.2	7.1	—	6.6	0.6
	合計	133.2	145.9	385.5	89.7	140.5	334.9	333.5	188.3	480.1
1年미만	유전스	3,052.3	2,635.8	1,064.2	3,668.5	3,283.4	1,449.4	3,206.2	3,832.8	822.7
	D/A	231.7	306.5	81.1	180.0	218.8	42.3	96.2	121.3	17.2
	合計	3,284.0	2,942.3	1,145.3	3,848.5	3,502.2	1,491.7	3,302.4	3,954.1	839.9
總計		3,417.2	3,088.2	1,530.8	3,938.2	3,642.7	1,826.5	3,635.9	4,142.4	1,320.0
		1979			1980			1981		
		導入	償還	殘額	導入	償還	殘額	導入	償還	殘額
1年이상	유전스	301.9	259.5	521.9	343.0	289.8	575.1	340.9	352.8	563.2
	D/A	—	—	0.5	—	—	0.5	—	—	0.5
	合計	301.9	259.5	522.4	343.0	289.8	575.6	340.9	352.8	563.7
1年미만	유전스	6,396.9	5,446.4	1,773.2	9,527.6	7,913.5	3,387.3	9,539.7	9,530.8	3,396.2
	D/A	194.6	174.5	37.4	246.1	234.4	49.1	216.2	207.7	57.6
	合計	6,591.5	5,620.9	1,810.6	9,773.7	8,147.9	3,436.4	9,755.9	9,738.5	3,453.8
總計		6,893.4	5,880.4	2,333.0	10,116.7	8,437.6	4,012.0	10,096.8	10,091.2	4,017.6

		1982			1983. 6			1983. 9		
		導入	償還	殘額	導入	償還	殘額	導入	償還	殘額
1年이상	유전스	267.8	369.8	461.3	24.2	33.6	414.8	23.6	30.9	390.9
	D / A	—	—	0.5	—	—	0.9	—	—	0.9
	合計	267.8	369.8	461.8	24.2	33.6	415.7	23.6	30.9	391.8
1年미만	유전스	9,274.9	9,409.6	3,261.5	1,922.6	1,821.3	3,635.2	1,791.1	1,701.2	3,795.1
	D / A	176.2	146.5	77.1	25.0	17.4	138.6	18.1	29.8	114.2
	合計	9,451.1	9,556.1	3,338.6	1,947.6	1,838.7	3,773.8	1,809.2	1,731.0	3,909.3
總計		9,718.9	9,925.9	3,800.4	1,971.8	1,872.3	4,189.5	1,832.8	1,761.9	4,301.1
		1983. 12			1984. 1			1984. 3		
		導入	償還	殘額	導入	償還	殘額	導入	償還	殘額
1年이상	유전스	24.7	18.1	413.4	23.7	27.1	410.0	33.1	29.8	416.8
	D / A	—	—	0.9	—	—	0.9	—	—	0.9
	合計	24.7	18.1	414.3	23.7	27.1	410.9	33.1	29.8	416.8
1年미만	유전스	2,264.8	2,195.6	4,015.1	1,675.5	1,783.2	3,908.3	1,866.5	1,827.6	3,837.2
	D / A	20.9	23.9	99.3	22.8	23.6	97.6	41.9	28.6	120.4
	合計	2,285.7	2,219.5	4,114.4	1,698.3	1,806.8	4,005.9	1,908.4	1,856.4	3,957.6
總計		2,310.4	2,237.6	4,528.7	1,722.0	1,833.9	4,416.8	1,941.5	1,886.0	4,374.4

(資料) 財務部

자까지 포함하면, 81년 55억 7천만달러, 82년 59억 7천만달러, 83년 58억달러로 매년 총상품수출의 25% 가량을 빚과 利子 갚는데 쓰이고 있다. GNP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GNP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81년 8.3%, 82년 8.4%, 83년 7.7%로 하락하고 있기는 하나,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短期外債利子부담액이 11억 1천만달러 가운데 유전스등 貿易信用도입에 따른 이자가 BA 레이트 도입기금으로 하고 3個月物 9%를 잡더라도 Spread 까지 합치면 4억달러 가까이 된다. 즉 at Sight 방식으로 수입하면 고스란히 國內에 떨어질 이자가 貿易信用도입으로 4억달러씩이나 무역업계 나아가서 國民全體가 부담한 것이다.

4. 최근의 外換当局의 움직임

작년 9월 美国의 Institutional Investor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컨추리리스크는 세계에서 31위로 브라질 51위, 멕시코 60위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나 臺灣 22위, 홍콩 17위, 싱가포르 12위 등 경쟁국에 비하면 크게 뒤쳐져 있다. 또 美国의 International Reports Inc. 에서 83년을 기준으로 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컨추리리스크는 評點 66.5點으로 低危險國에 속해 있으며, 90개국중 35位안에 드는 비교적 안정국가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양호한 편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 정부는 IMF(國際通貨基金)와 83년말 短期外債규모를 82년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여 실제 연말에는 단기외채규모가 139억 7천만달러로 82년말의 141억달러보다 1억 3천만달러가 감소돼 약속을 지켰다. 또 금년에는 短期外債규모를 작년말 수준에서 2억달러 가까이 줄이도록 중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차 5

(컨추리 리스크 順位)

		81. 9月	82. 9月	83. 9月
韓	國	39	32	31
台	灣	24	23	22
홍	콩	17	14	17
싱	가 포 르	14	13	12
브	라 질	50	42	51
멕	시 코	25	37	60

註: Country Risk의 評價要素는 대체로 DSR, 경상수지, 물가상승률, GNP, 國際流動性, 政治安定度 등임.

(資料) Institutional Investor誌

《우리나라의 컨추리 리스크》

	1981	1982	1983
Institutional Investor지 (順位) ¹	39	32	31
BERI (順位) ²	23	19	19
ICRG (評點) ³	62.5	59.0	66.5

註：1) 國際商業銀行에 대한 設問評價결과로 美國 Institutional Investor Inc.에서 작성 (매년 9월)

2) Business Environment Risk Index (매년 10월)
정치적 안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여 美國 BERI社가 작성.

3)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매년 12월)
美國 International Reports Inc.에서 90 개국가(83年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

高危險国 (0.0-49.5)	中危險国 (50.0-59.5)	低危險国 (60.0-69.5)	最低危險国 (70.0-100.0)	計
30개국 (33.3%)	25개국 (27.8%)	10개국 (11.1%)	25개국 (27.8%)	90개국 (100.0%)

개년계획에 따르면, 올해 外債規模를 長期는 287억달러로 작년보다 27억달러 늘리되 단기의체는 2억달러 감소한 139억달러로 낮춰 短期外債부담률을 작년의 35.2%에서 32.6%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 해 단기의체를 전년수준으로 유지하는데도 延支給輸入기간을 60일씩이나 단축했다. 물론 유전스기간단축이 外債構造개선뿐 아니라, 수입억제 등 여러가지 정책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유전스기간의 단축은 수입억제효과가 큰 것이다. 특히 지난해 5월 20일 改正時에는 단순히 사치성품목의 수입규제(實行關稅率 30% 이상은 연지급수입 대상에서 제외) 및 기간단축의 의의 뿐이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그동안 聖域視돼 온 原油와 石油製品의 특인조항을 삭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원자재의 外上輸入도 규제한 것이다. 물론 原油가격이 배럴당 지난 81년에는 35.4달러, 82년에는 34.2달러이었으나, 83년에는 28.9달러로 크게 낮아진 데다가 연지급수입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국내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기는 하다. 이같은 정부측의 예측에 크

게 빚나가지는 않았다. 유전스기간단축에도 불구하고 유전스수입품목의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유전스수입의 大宗을 이루는 原油·石油製品·양곡·소맥·옥수수·原木·原糖·철강피·原綿·銅鉍石·생고무등 기초원자재의 국내유통구조가 代金決濟期間이 사실상 4개월을 넘지 않고 있으며, 輸入者和 실수요자가 비교적 완전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유전스기간단축만으로 오랜 商慣習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輸入業者만이 유전스기간단축에 따른 추가자금 부담을 져야 했고, 이는 곧 수입억제효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단축 불가피할 듯

그러나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친 기간단축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지표나 통계상으로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올해 들어서만도 短期貿易信用도입실적은 26억470만달러로 작년동기의 24억8,770만달러에 비해 1억1700만달러가 늘고 있다. 게다가 국제수지적자가 지난 4월말로 7억8천만달러에 이르러 年末目標를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연구기관에서는 연말까지 1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外換政策当局者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적 여건에 미루어볼 때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조치라면 연초 이후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유전스기간 90日 단축은 업계로서도 예측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의 모판계자는 업계에서 전전공공하고 있는 유전스 90日 短縮說에 대해 『國際收支改善을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밝혀 유전스기간단축을 시사한 바 있다.

유전스기간단축문제와 아울러 관계기관에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輸出用原資材의 한도관리문제이다. 현행 輸出支援金融規程이나 외환관리규정에 따르면 原資材輸入資金의 한도와 연지급수입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으나, 이를 분리운영하고 있어 輸出金融限度부족으로 수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스로 수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늘 한도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무역업계는 국내신

용이 아닌 해외신용으로 輸出用原資材輸入을 하고 있다. 물론 유전스수입한도를 輸出金融規程上 원자재限度內로 해야한다는 이론이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한 原資材金融의 유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輸出用原資材의 유전스수입한도를 수출금융규정상의 한도내로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그러나 輸出用原資材의 유전스限度減縮은 수입규제효과도 물론 있지만 이보다 제도금융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 유전스輸入期間단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국내업계가 쓰고 있는 延支給輸入은 시퍼즈 유전스 보다 뱅커즈 유전스가 대부분이어서 一覽拂輸入보다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前述한 바와 같이, 유전스輸入은 결국 國內外金利격차와 換率變動 그리고 企業資金조달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업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유전스 금리는 去來銀行, 수입품목, 業體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달라 국내업체들도 銀行調達金利인 BA레이트를 적용받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13.5%의 프라임 레이트로 도입하는 업체도 있다. 原木 10만달러를 一覽拂과 유전스수입(4개월)과의 수입原価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外換手數料·関稅등의 계산은 생략하더라도 유전스수입이 다소 불리하다. 물론 換率상승폭이 기간중 1%가 오르고 통관후 시판과 유전스 결제기간까지의 부담이자등 국내금리를 기준금리로 책정한 맹점이 있기는 하나 대신 유전스금리도 프라임레이트나 LIBOR가 아닌 BA레이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內外金利差가 없고 換率이 年 3%(매 4개월 단위로 1%) 오른다는 가정하에서 단순히 利子개념만 대입하더라도 유전스수입이 일람불수입보다 코스트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전스輸入期間을 1개월 단축하더라도 무역업계의 비용부담이 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資金計劃이 수입부문만이 아니고 전사적으로 짜여지고 일정기간단위로 회전되기 때

문에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 이 일시적인 자금압박은 유전스기간 한달치만큼의 결제자금에 해당되지만, 추가자금을 메우는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긴축기조하에서의 급작스런 기간단축은 大企業보다 中規模企業에게 더 큰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유전스輸入이 일람불輸入보다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유전스도입을 축소할 수 없는 최근의 輸入行態下에서는 銀行代拂사태까지 속출할 것이며, 심할 경우 不渡나지 말라는 法도 없을 것이다.

(일람불 및 유전스 輸入費用 分析)

일 람 불 輸 入	유 전 스 輸 入
輸入保證金 100,000\$×0.11×10.5%×13/365=41\$	
換價料 100,000\$×12.9%×13/360=459.45\$	유전스利子 100,000×10.75%×120/360=3,547\$
市販어음결제기간(3개월) 100,000\$×10.05%×90/365=2,478\$	換差 100,000×1%=1,000\$
計 2,978.45\$	計 4,547\$

- 計算基準: 1) LC 開設金額 US Dollor 100,000
 2) 販賣完了期間 3개월
 3) 유전스期間 4개월
 4) 國內利子 10.5%, BA Rate 10.75%
 5) 4개월간 換率上昇幅 1%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內需用 延支給輸入品目的 대부분이 기초원제인만큼 國內市販代金 決済期間短縮까지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유전스기간과의 차이만큼의 利子負擔額은 市販價格에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원자재의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제품에까지 파급될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이같은 기간단축은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국내물가안정을 포기하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다.

또 기업측에서도 기간단축에 따른 추가자금소요분만큼에 대해서 조달상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최근의 實質金利만큼의 추가금융비부담을 감수해야 된다. *